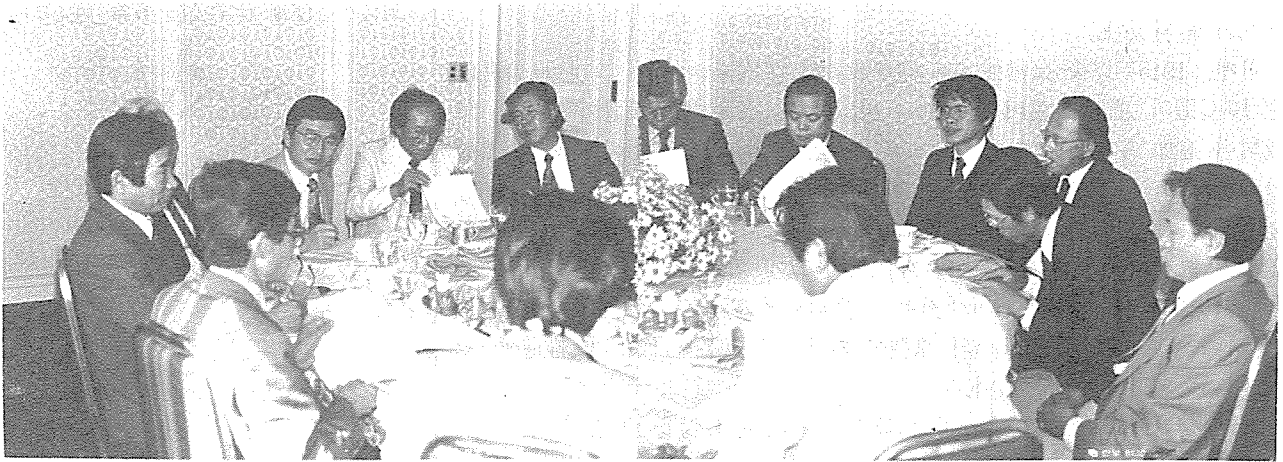


日本の 集合住宅計劃의 發展과 今日の 課題

鈴木 成文

(日本 東京大学 工学部建築科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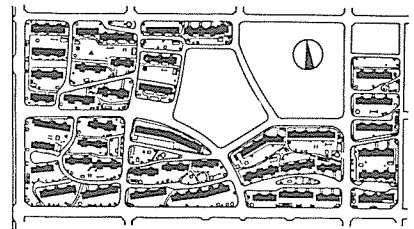
本稿는 지난 10月初, 日本東京大学校 工学部 建築科 鈴木成文 教授의 訪韓에 즈음하여 大韓建築学会가 主擧한 座談會 “題・日本の 集合住宅의 計劃과 今日の 課題”의 要約을 本協會의 의뢰에 따라 座談內容中 特히 鈴木成文 教授의 메모를 번역, 정리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漢陽大学・朴勇煥 教授>

/ 参席者 /

尹張變, 金熙春, 田耕培, 安英培, 李延德, 金柄汐
宋鍾奭, 李海成, 具一鈺, 金眞一, 具玠会, 朴勇煥.

主로 世界 2次大戦後부터 始作하여 發達한 集合住宅 計劃은 今日 日本의 公共住宅 建設과 함께 劃期的인 發展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우기 最近에는 民間建設이 이에 加担하는 事例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樣相이 점차 多樣化하는 實情이다. 이 時点에서 日本의 団地住宅의 計劃의인 側面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成功한 面도 많지만 問題点 또한 적지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反省도 할겸, 戰後 35年間을 時期的으로 戰後復興期, 高度 成長期, 安定反省期의 3期로 나누어 各 時期마다 集合住宅計劃의 特徴的인 現象을 살펴 보기로 하면, 우선

年度別 団地住宅의
配置計劃의 实例



古市団地 (大阪市營 1953~4年)

戰後 復興期(1945~1955年)

公營住宅에 의한 集合住宅의 普及에 있어서, 戰後 日本에서는 大都市의 황폐로 因하여 1945年の 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하는 것이 큰 問題가 되어 그 応急조치로 國庫에 依한 住宅面積이 6.25坪에 지나지 않는 簡易住宅이 大量으로 建設되었다. 그것은 비록 극히 미흡한 團地計劃이었으나, 처음으로 國庫에 의해 建設된 것으로 以後 公營住宅의 發端이 된 셈이다.

公營住宅은 建設費의 半을 國家가 負擔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賤싼 賃貸住宅을 建設하는 制度로서, 이것에 의해 全國적으로 수많은 集合住宅 및 住宅團地가 建設되었다.

量的으로는 年間建設戶數의 불과 몇%에 지나지 않았지만 住生活을 考慮한 住戶平面計劃, 一團地에 의한 環境形成等の 點에서 民間住宅建設의 本보기가 되었다.

한편, 1945年以後 公營住宅의 標準設計의 作成과 더불어 그것이 公營住宅 R·C造의 建設에 있어서 原則이 되었는데, 每年 標準設計가 새롭게 作成되어 追加 혹은 改訂되었다. 그 結果, 當時 R·C造 建물이 거의 全無했던 地方都市의 경우, 建設技術을 普及하는데 標準化가 커다란 役割을 담당하였고, 또한 그 設計에 있어서도 一流의 設計事務所, 大學研究者 等の 參與로 그것이 日本의 住樣式의 近代化에 크게 기여했다는 點이다.

특히 1951年度의 標準設計에서는, 食寢分離, 就寢室 獨立을 計劃原理로 하여 이른바 DK型 plan의 原型이 되기도 한 點은 近代化의 推進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한 被害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地方이나 地域의 特性이 無視되었고, 標準化 自体가 항상 時代의 要請에 따라 새롭게 対応할 수 있는 姿勢가 不可欠 함에도, 結局 全國적으로 劃一的이며 同一한 形의 住宅建設이 이루어진 點을 問題點으로 지적할 수 있고, 또 다른 問題點으로서 計劃에 있어서 個體(住戶)와 全體(團地)의 分裂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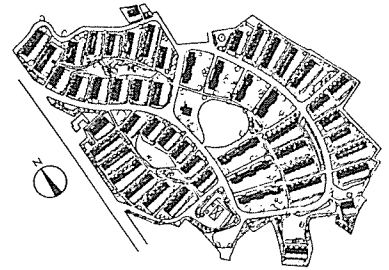
標準設計가 初期에는 主로 住戶만의 標準으로 作成되어 住棟은 단순히 그것을 集合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住宅團地로서의 全體計劃 역시 標準化된 棟을 나열하는 作業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本來 敷地의 狀態나 個別的인 조건에 따라 計劃되어야 할 全體計劃과 그 構成要素인 住棟, 住戶가 전혀 別途로 設計되어 兩者의 分裂이 深化되고, 또한 그것이 그以後의 集合住宅計劃에 있어서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 點이다.

한편 團地設計基準에 있어서, 住棟은 특히 建設의 經濟性이 優先한 結果, 대체로 4層 階段室型이 一般의이었으나 地方에서는 2層 建物도 많이 建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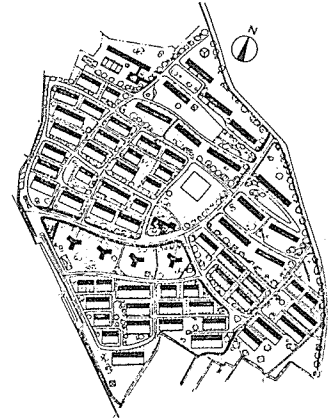
配置計劃上的의 하나의 基準으로서 隣棟 間격을 살펴보면 단순히 冬至 때 「4時間日照의 確保」라는 形態로 지켜져 왔으나 그것이 반드시 衛生上의 檢討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團地空間의 密度를 어느 限度 이하로 억제시켜 良好한 戶外環境을 維持하려는 意圖에서 비롯되어 그 役割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反面, 그러한 數値에 規制되어 항상 劃一的이며 單調로운 南面 平行配置된 一即 「團地風」의 景觀을 만드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高度 成長期(1955~197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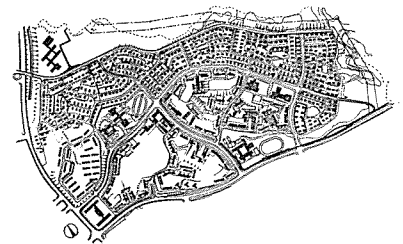
住宅公團에 依한 團地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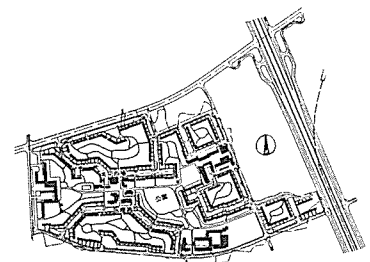
阿佐ヶ谷団地(住宅公團 東京 1958年)



中百舌鳥団地(住宅公團 大阪 1958年)



千里ニュータウン B住区(大阪府 1962年)



八田荘団地(大阪府營 1967-)

經濟的인 發展과 成長에 따라 人口의 급격한 都市集中이 進行된 結果, 大都市圈의 住宅建設이 活潑하게 되었고, 特히 1955년에는 마침내 日本 住宅公團이 設立되기에 이르렀다.

日本 住宅公團은 大團地 住宅建設을 主導한 半官半民의 住宅建設機關으로서 初期에는 1000戶정도, 곧이어 3,000戶, 6,000戶等의 大團地를 建設하였고, 나아가서 뉴-타운 開發에 着手하게 되었다.

한편 住宅公團은 住戶의 標準設計를 一室型에서 3室型에 걸친 標準設計의 型系列을 作成, 整備하였다. 이때 家族型과 住戶規模의 対応 問題가 作成上 主要한 計劃上의 理念이 되었지만, 現實的으로 供給方式이 賃貸費와 取入에 의해 左右될 뿐으로 家族型과 家族數와의 対応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結局 그 정도에서 그치고 만 셈이다.

標準型의 型系列에 對한 整備는 家族型과의 対応이란 面에서 보다 오히려 大量建築에 따른 計劃·設計作業의 能率化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반면에 그것은 점차 住戶型을 固定化시켰고 住戶의 集合 計劃과 住戶計劃을 分裂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住宅公團의 最大功績은 團地設計에서 찾아볼 수 있다. 適正密度의 維持, 住棟集團의 形成, 어린이 놀이터의 分散配置, 둘러쌓인 戶外空間의 形成, 景觀變化의 演出, 線地의 連續的 確保, 步行者 道路의 整備, 生活領域의 計劃, 公共施設의 適正配置等을 主題로 하는 아름다운 團地가 여러곳에서 計劃·建設되었으며, 計劃 技法上에 있어서 研究分野로 부터의 協力이 컸다.

住宅公團은 많은 委託研究를 通하여 大學研究者와 긴밀한 紐帶關係를 가지고 새로운 技術의 開發, 檢討, 아이디어等に 관한 交流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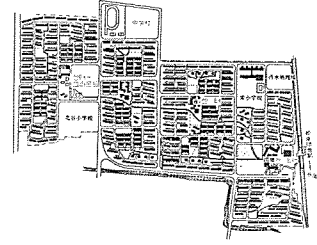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의 實態 近隣交際의 實態, 近隣集團의 形成, 生活領域形成의 實態等に 對한 調查研究는 오늘날 團地計劃의 基礎가 되고 있다.

점차 建設은 大規模化되어 1960年代에는 뉴타운이 建設되기에 이르렀다. 이 計劃의 基礎理念은 英國과는 달리 生産機能이 없고 母都市에 對한 通勤都市로서 密度 또한 높게 建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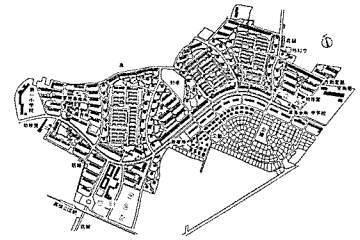
이 計劃에 있어서도 研究分野로부터의 協力이 至大하여 地域人口의 變化子測, 教育, 醫療등의 公共施設의 規模計劃, 生活圈의 想定, 近隣住區機能, 交通子測, 植物 生態와 綠地 保存等に 관한 수많은 研究等を 紹介할 수가 있으나 한편에서는 뉴타운 建設로 因하여 都市의 스프롤(sprawol) 現象을 가져왔다는 批判도 적지 않다.

1960年代 末부터 都市가 巨大化, 集中化됨에 따라 既成市街地內의 工場을 郊外로 移轉하고, 그 敷地를 市街地 高層團地로 再開發하는 計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심한 地價의 高騰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高密化를 招來하게 되었고, 그 結果 高層, 中復道型, 南北軸 住棟이 많이 採擇되어 1,000人/ha 以上の 高密度計劃이 많아지고, 巨大性, 劃一性, 좁은 住戶의 開口部幅, 方位의 無視, 日照時間의 缺如等, 居住上의 問題點과 地域住民과의 關係에 관한 問題點을 提起하기는 하였으나, 本來 既成市街地의 高密地區에 넓은 空地를 提供한 點에 對한 評價와 함께 空地의 利用狀況, 周邊地域과의 關係等에 관한 많은 研究가 行하여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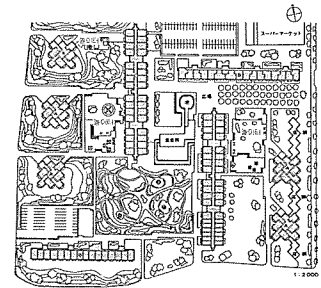
構法의 工業化-大量建設에 따른 量産工業化構法이 크게 進歩함에 따라, 그 技術的인 面에서 世界有數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 까지에는 政府主權의 提案競技나 建設實驗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며 優良部品の 認定制度等에 의하여 建築이나 設備의 部品化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技術的인 面의 進歩에도 불구하고 大量供給을 保證하는 制度的인 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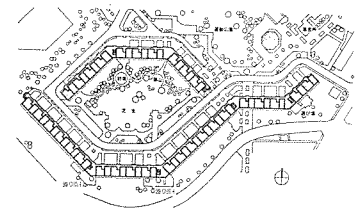
草加松原團地(住宅公團開東 1961-63年)



高根台團地(住宅公團東京 1961-63年)



1968. 日本住宅公團關西支社



1969. 奈良北團地(横浜市)

면에서의 施策이 뒤따르지 못하여 그러한 技術이 充分히 反映되지 못하고 또한 施工, 生産面에서만 偏重되어 設計의 多樣化나 個性化에 있어서 有効하게 寄與하지 않는 点들이 構法的 伸長을 沮害하고 있다.

密度와 住宅形式-地價가 높아짐에 따라 集合住宅의 計劃에 있어서도 高密度化가 要求될 때가 많고 特히 民間의 경우 더욱 그러한 傾向이 심하였다. 따라서 過密을 防止하는 措置의 必要에 따라 그것이 좋은 住環境의 形成을 위한 基礎로써 또한 密度에 따라서 적절한 住宅形式을 選擇하는 即, 計劃上의 要点이 되었다.

現在 日本의 경우 密度와 住宅形式의 關係는 대개 아래의 表와 같다.

(純密度를 表示한것임)

| | 人口密度 a/ha | 容積率 % |
|---------|-----------|--------|
| 低層獨立住宅地 | 60~200 | 20~60 |
| 低層集合住宅地 | 100~300 | 30~70 |
| 中層 " | 200~450 | 50~110 |
| 高層 " | 350~700 | 90~160 |

安定 反省期(1974年~1980年)

情勢의 變化와 轉換—1974年 오일쇼크의 余波로인한 急激한 經濟變動과 不況 以後 事態는 一變하였다. 大規模開發이 억제되고, 어느때 보다는도 훨씬 어려운 經濟條件下에서 建設해야만 하였다.

公團住宅의 경우, 都心에서 比較적 遠距離에 位置한 곳에서는 比較적 統出하게 되어 以前과 같이 단순히 建設하기만 하면 된다는 狀況과는 正反對로, 이제는 需要의 精密한 予測下에서 多樣한 形態의 計劃이 必要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機會에 과거 成長期에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人間性의 回復이 活潑한데, 이 時期의 問題點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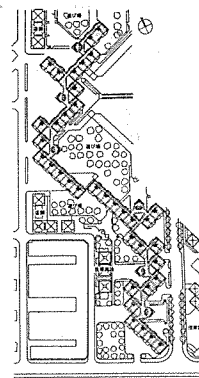
- 規模의 縮小, 分節化
- 大規模開發 → 小規模開發
- 巨大한 프로젝트 → 人間的 스케일의 존중, 스케일의 分節
- 高層住宅 → 低層住宅(타운 하우스)의 流行

規模가 巨大化되면 自然히 人間性을 잃게 되기 쉽고, 全体가 劃一的 이고 單調로우며 非人間的인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人間性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周辺과 融和하는데도 適合한 小規模開發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大規模의 開發인 경우 그것을 人間的인 스케일로 分節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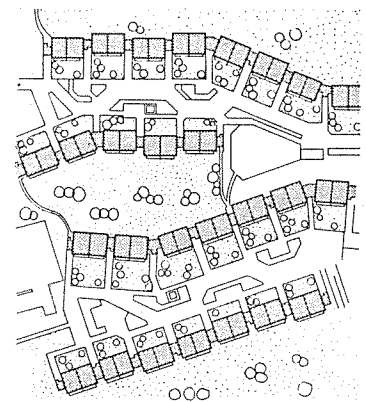
또한 大規模開發이 非經濟的이고 非能率的이라 하여 低層住宅, 타운하우스에 관심이 集中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좁은 敷地에 高密度로 住宅을 建設하는 미니(mini) 開發이 생겨나서 都市空間의 構成上 새로운 問題가 되고 있다.

- 多樣性, 個別性
- 劃一性 → 多樣性
- 標準化 → 個別性
- 近代化 → 傳統性的 尊重
- 統一性 → 地方性, 地域性的 尊重
- 레디메이드(Ready Made) → 셀프메이드(Self-made)
- 公共性 優先 → 小集團의 尊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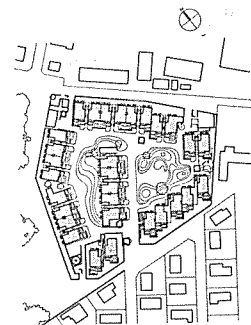
共有空間의 重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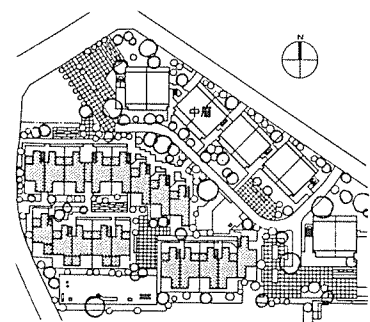
基町団地(広島市) 1972



館ヶ丘団地(東京都八王子市) 1975



六番池団地(水戸市) 1976



下細井団地(前橋市) 1978

高度成長期에는 能率의인 面이 무엇보다 優先하였기 때문에 規格化, 標準化, 近代化의 推進과 더불어 全国 어디에서나 同一한 形의 것이 建設되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이 點에 對한 反省이 빠르게 시작하여 公營住宅에 있어서 各県, 各 地方이 獨自性의 強調과 더불어 多樣한 計劃이 생기게 되고, 居住者의 小集團에 의한 安定된 居住環境을 造成하고 나아가서 住戶内部에 이르기까지 자기 自身에 의한 造作이 尊重되기 시작하고 있다.

人間性

- 能率優先 → 人間性 尊重, 居住性 尊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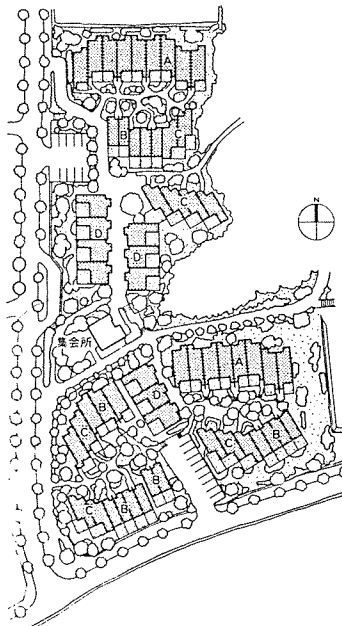
- 建設量優先 → 將來에 남을 資産으로, 高度成長期에 있어서 建設量 即, 戶數 확보에 急急하였던 것을 反省하기 始作하여 一戶一戶에 對한 規模의 確保를 追求하고 있다. 이 때문에 公營住宅의 경우 그 戶를 1戶로 改造한다든가 増築에 關한 事業이 일어나고 있다.

住戶 規模의 增加에 따라 居室空間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問題를 포함하여 住戶平面計劃의 理念에 이르기까지 再檢討의 必要性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將來에 남을 資産으로서의 住居」를 計劃한다는데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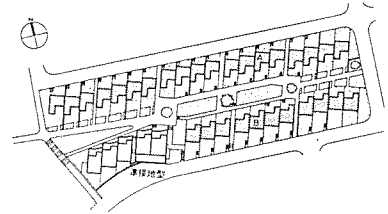
結

以上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日本의 住宅建設은 高度成長期를 通해서 量的으로 擴大되었고 技術的인 面에서의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왔지만 同時에 그것으로 因한 많은 問題點을 남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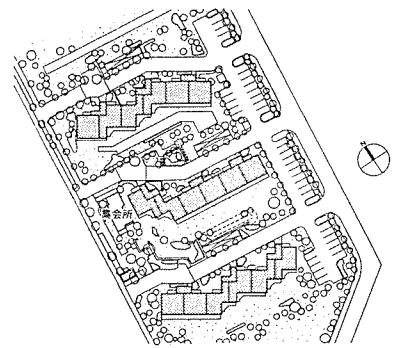
특히 住居規模의 擴大, 適正密度의 확보, 巨大한 스케일의 分節, 人間性, 個別性의 尊重등이 큰 課題로 남아있다. 이것은 當面한 經濟性과 반드시 兩立하지는 않지만, 住宅이 將來 資産으로서의 價值가 있어야 한다는 보다 긴 眼目으로 볼 때 重視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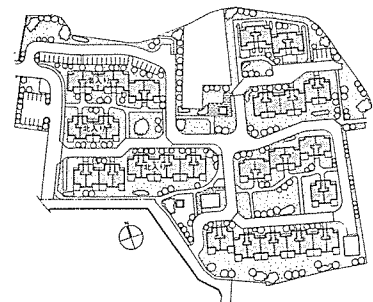
타운하우스諏訪(東京都多摩ニュータウン) 1979



庭代台 타운하우스(大阪府泉北 뉴타운) 1975



さつき団地(神奈川県海老名市) 1978



北岸和田団地(大阪府門真市) 1978